

# 삶의 허위와 사랑의 허위

- 염상섭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 -

정 혜 영\*

## 차 례

- |                   |                              |
|-------------------|------------------------------|
| I. 서론             | IV. '영혼의 사랑'과 실재하는 '사랑'간의 거리 |
| II. 신청년들의 등장      | V. 결론                        |
| III. 타인의 삶을 향한 시선 |                              |

## I. 서론

1926년 8월 극작가 김우진과 성악가 윤심덕이 현해탄에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조선에서 발생한다. 사건에 대한 특집<sup>1)</sup>이 잡지에서 다루어질 정도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들의 정사(情死)사건은 당대 신청년들을 열광시켰던 '연애'의 전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동경 음악학교를 졸업한 신여성 윤심덕과 와세다 대학 출신의 김우진간의 애정관계는 구식 여성을 아내로 둔 기혼남과 신여성간의 사랑이라는 점에서 이미 변혁기 조선사회가 지닌 문제점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남성들과

\* 부경대학교 강사

1) 윤심덕, 김우진의 情死사건에 대해서는 일간지는 물론 『新民』(1926. 9.1)에서 기획특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끊이지 않는 염문 속에서 급기야는 부호의 첩이 되었던 윤심덕의 이력은 당대의 언론들을 통해 지적된 신여성들의 부정적 행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도 했던 것이다.

윤심덕과 김우진간의 이와 같은 정사(情死)사건은 정사(情死)가 지닌 센세이셔널한 측면을 넘어 근대적 의식의 조선적 수용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도 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해, 과연 “純粹한 愛情에 依”<sup>2)</sup>한 것인지를 반문하는 가하면, 情死를 “一種의 文化的 特産物과가티 誤解”<sup>3)</sup>하는 신청년들의 기묘한 풍조를 우려하는 당대 논설의 언급은 이와 같은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이들이 죽음에 도달할 정도로 서로 깊이 사랑했었는가에 대한 이 시기 논설들의 거듭되는 반문은 1920년대를 휩싼 ‘연애’의 실재성에 대해서 회의케 함과 동시에 이들 신청년들이 경험한 근대의 실체를 새삼 고려케 한다. 1923년, 신청년들의 애정 풍속을 테마로 발표된 염상섭의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는 이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는 「萬歲前」, 「해바라기」에 연이어 발표된 작품으로서 “신여성의 모랄비판”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평해지는 작품이다. 이 “작품을 이루게끔 한 동기화는 여성혐오증”<sup>4)</sup> 즉, 신여성에 대한 경멸이다라는 후대의 지적은 바로 이에 대한 한 예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sup>5)</sup>이 신여성을 포함 신청년들의 애정관계를 주된 축으로 하고 있음은 이와 같은 지적을 넘어서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김윤식이 지적하듯 염상섭이야말로 “신여성과 그녀들을 둘러싼 동경유학생 출신의 지식인 사내들의 취향, 성격, 생리, 내면 풍경을 손바닥같이 훤히 꿰뚫고 있”<sup>6)</sup>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이들 인물들 간의 애정의 진행 과정은 조선의 근대성 여부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작품에 등장하는 신청년들의 성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安在鴻, 「合意한伴侶者」, 『新民』 1926. 9.1, 68쪽.

3) 「情死問題批判」, 『新民』, 앞의 책, 68쪽.

4)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276쪽.

5) 이하,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를 생략, 「너희들은……」으로 표기.

6) 김윤식, 앞의 책, 276쪽.

## II. 신청년들의 등장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는 일본 유학을 앞둔 덕순의 송별연 준비로부터 시작된다. 덕순은 여학교를 졸업, 잡지를 주관하고 있는 소위 신여성으로서 그녀의 송별연에 초대받은 인물들 역시 그와 같은 덕순의 면모에 어울리게 신지식을 습득, 근대적 외양을 지닌 신청년들이다. 신문기자 중환, 여교사 마리아, 일본 유학 출신의 룬펜 명수, 화가와 결혼해 있는 신여성 정옥, 일본 청산학원에 유학중인 한규와 경애를 비롯, 고등 교육을 습득한 인물들과 이들을 중심으로 흥진, 석태, 문수 등이 그들이다. 작품은 일정한 주인공을 두지 않은 채 이들 모두가 얹혀진 애정관계를 형성하면서 전개된다. 중편이라는 분량을 고려할 때, 다소 번잡한 느낌을 주는 이 다양한 인물군의 분포는 ‘3. 1운동 직후 청년 지식인의 무방향성’<sup>7)</sup> 등의 이 작품에 대한 종래의 지적을 넘어선 또 다른 해석을 고려케 한다.

1905년 을사보호 조약 체결 후, 통감부시대가 열리면서, 조선의 교육제도가 새롭게 개편된다. 1906년의 보통학교령 및 고등학교령, 사범학교령 그리고 1908년의 사립학교령의 공포를 통해 근대적 학제가 체계적으로 성립, 근대적 교육이 조선에서 실행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종래의 소학교가 보통학교로 개칭되고, 중학교 역시 고등학교로 변모, 수업연한은 전자가 사 년으로 단축되고 후자가 3년에서 4년으로 확정된다. 물론, 1883년 소·중학교 통합과정인 원산학사가 설립되었고 1895년 소학교령이 공포되면서 근대적 교육제도가 이미 대사회적으로 시행되고 있기는 했었다. 그러나 소학교 설립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만한 재원의 부족, 신교육에 대한 국민적 이해 결여 그리고 무엇보다 신교육의 교습이 가능한 교사의 절대적 부족<sup>8)</sup> 등의 이유로 인해 이 시기의

7) 김윤식, 앞의 책, 278쪽.

8) 교원양성 기관인 한성사범학교 관제가 공포된 것은 1895년이다.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한 이 학교는 수업연한이 본과 2년 속성과 6개월이며 교과목은 교수법 및 역사, 지리, 수학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학과 과정이 “주로 한학에 힘쓰고 있고 다른 보통학과는 거의 등한하게 하고 있”었다는 점은 실질적으로 근대적 교육 능력을 습득한 교원양성이 이 시기에 아직은 불가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高橋濱吉, 『朝鮮教育史考』, 제국지방행정학회 조선본부,

신교육은 실행에 있어서 상당부분 난항을 겪고 있었다. 가령, 1905년 동경 부립 제1중학교 조선인 유학생 동맹 휴교의 계기가 된 사건, 근대과학의 기초로 되는 여타 과목들에 대한 조선인 유학생들의 무지함을 민족적 역량의 문제로 연결시킨 일본인 교장의 인격 모독적 발언은 이들 유학생들이 섭렵했던 구한말 신교육의 현주소를 능히 짐작케 한다.<sup>9)</sup>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해서, 조선에서의 근대적 교육의 체계적 시행은 1906년의 보통학교령의 공포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들 보통학교령의 개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의 소학교령을 보완하고 있는데 교과목의 부분에서 주목할만한 변화는 일본어가 조선어와 동일한 비율의 시간 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sup>10)</sup> 통감부시대의 개막과 함께, 조선의 일본화를 겨냥한 변화 속에서 성장한 이들 세대가 사회에 전면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대략, 1910년대 중반을 넘어선 시기가 된다. 말하자면 191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조선에 등장한 신청년들은 일본에 의해 체계화된 근대적 교육 및 일본어를 습득한 인물들로서, 전통적 유교적 교육을 습득한 이전 세대와는 물론 한학을 주된 교과목으로 설정,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근대적 교육을 습득했던 구한말의 신교육 세대와도 분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

1929, 115쪽(咸宗圭, 韓國教育課程變遷史研究, 淑大出版部, 1976, 23쪽에서 재인용))

9) 1905년 동경부립일중학교에 재학중인 조선인 유학생이 동맹휴교 사건을 일으킨다. 그 원인은 12월 2일 勝浦교장이 報知신문과의 기자 인터뷰에서 조선인 유학생의 학습상태, 특히 근대과학 관련 학과 수행 능력의 절대적 한계를 일본인과 비교, 혹독하게 비판한 것에서 비롯된다. 여기에는 조선을 보호국화하려는 일본의 치밀한 계획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이에 조선인 유학생이 동맹휴교로 대항 결국에는 전원 퇴학의 사태로까지 치닫게 된다. 문제는 갑오경장 이후 조선에서 신식 교육이 실시되었음에도 조선인 유학생들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수학, 과학과 같은 근대과학 기초 과목들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였다는 점에 있다.(上垣外憲一, 『日本留學と革命運動』, 東京大學出版會, 1982, 133-136참조)

10) 學部令 第23號로 公布된 보통학교 각 학년의 교과목 및 매주의 수업시수에 의하면, 국어 즉 조선어가 6시간, 일본어가 6시간, 산수가 6시간으로 최고의 시수를 차지하고 있다.(咸宗圭, 앞의 책, 34쪽) 한말 소학교의 경우 외국어가 필수였다고 보다는 선택으로 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염상섭의 『너희들은……』에 등장하는 다수의 신청년들은 1919년을 전후해서 조선사회에 대거 출현한 이와 같은 새로운 세대들이다. 열아홉에서 스물여섯 일곱에 분포되어 있는 이들의 연령대, 특히 현재 일본 유학 중인 일부 인물들(한규 경애)의 나이 및 이들과 선후배 관계를 형성한 나머지 연장자들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적어도 1906년 보통학교령 및 고등학교령의 공포 이후 체계적으로 근대교육을 습득해간 인물들인 것이다. 일본인 상점에 취업할 정도의 탁월한 작중 인물 명수의 일본어 실력은 몇 년간의 일본 유학 덕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기생집에서조차 일본어로 대화를 주고받을 정도로 생활화된 작중 인물들의 일본어 습관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근대적 신교육의 체계적 습득, 일본어의 활용을 통한 근대적 문물의 직접적 흡수, 신시대적 감각의 체득. 1910년대 말의 조선은 이와 같은 신청년들의 대거 등장과 더불어 새로운 시기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남편과 결별, 일본 유학을 감행하는 신여성 덕순의 급격한 행위를 1919년의 만세운동 직후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파악하는 염상섭의 태도는 상당히 주목할만하다. 다음은 일본 유학을 둘러싼 덕순의 행위에 대한 후배 경애의 언급이다.

경우루 따지면야 그두 그러치만 아무것두 몰랐으면 그대루 지내겠지만 무얼 좀 알게 되니까 쿵쿵중이 나서 그대루 지내겠소? 덕순이의 형님두 만세 이후로 급작실히 펴 변한 모양입디다. 게다가 글짜나 쓰는 사람들하구 추축을 하고 잡지니 문학이니 하게 되니까 딴 세상 가튼 생각이 나는게지……그건 고사하고 <엘런, 케이> 니 <입센> 이니 <노라> 니 하는 자유 사상의 맛을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을 자괴의치디에만 비교해 보고 한층 더 마음이 음죽이지 안겠소<sup>11)</sup>

1925년 『開闢』에 실린 『最近朝鮮에 流行하는 新述語』<sup>12)</sup>라는 題名의 글은 ‘만세운동’ 이후 조선에 등장한 ‘新述語’를 열거, ‘기미년 만세운동’ 이후 조선의 사회적 변모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 의하면 ‘만세운동’을 기점으로 조선에서는 ‘前에 보지못하든 새현상이 만히생겼고’ ‘前에듣지못하든 새말도만히생기고 前에쓰지못하든 새文字도 만히쓰게되’었다는 것이다. ‘不逞鮮人’, ‘日

11) 염상섭, 『너희들은 무엇을 어딴느냐』, 『廉想涉全集』 1, 民音社, 190쪽.

12) 『最近朝鮮에 流行하는 新述語』, 『開闢』, 1925. 3.

鮮融和’, ‘親日本主義’처럼 3.1운동 이후의 정치적 상황을 지칭하는 용어와 더불어 이 글에서 대표적인 예로서 제시된 용어들, 예를 들자면 ‘民衆’ ‘푸로레타리아’, ‘大會’, ‘解放’, ‘階級鬭爭’, ‘戀愛自由’ ‘煩悶苦惱’, ‘어린이’등<sup>13)</sup> 근대적 사상의 이입을 상징하는 용어들의 범람은 이 시기 조선이 겪은 다양한 사상 및 의식의 혼재를 충분 감지케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조선의 변모에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삼일운동의 실패, 문화정치로 이어지는 조선의 사회, 정치적 상황이 긴밀하게 작용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와 더불어 근대적 문물을 수용할만한 계층의 성립이라는 문제 역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염상섭이 덕순의 급격한 의식의 변모를 만세운동 직후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덕순에게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전통적 가치체계의 붕괴를 실은 이미 만세 전부터 읽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감지된다. 3. 1운동 직전의 조선의 상황을 그린 『萬歲前』에서 일본 유학생 이인화의 눈에 포착된 형의 모습은 그런 점에서 많은 의미를 지닌다.

兄님은 만또밋흐로 내어다보이는 鍍金을 물린 검정還刀꽃치 다리에 터덜거리며 부딪는 것을 외인손으로 꼭뽏들고 땅이꺼질 듯이 살금살금거려나오다가, 천천히 그동안經過를이야기하여야들려준다.(…中略…)이兄님이라는사람은 漢學으로 다져만든村生員님이나 新學問에도 그리어들지는안홀뿐안이라, 우리집에는 업스면안이될사람이다. 父親이, 合併前後에, 거진政治狂 名譽狂에달떠서京鄕으로東奔西走하며 넉넉지안은財産을 호지부지축을내어노흔분수로 보아서는 只今쯤 내가 留學을하기는고사하고 밥을끓은지가 벌써오랜일이엇겟지만, 얼마안이남은 것을, 이兄님이 붓들고 안져서 바자위게 꾸려나가기 때문에 이만치라도 托持를하게된 것이다.<sup>14)</sup>

여기서 이인화가 목도하는 ‘鍍金을 물린 還刀’와 망토로 치장된 형의 모습은 거리를 채워오고 있는 일본 집들과 더불어 변모된 조선의 풍경을 형성해준다. 염상섭이 형의 변모된 외형에 대해 이인화의 입을 빌어서까지 세밀하게 묘사해 가는 이유는 형이 조선의 전통적 정신체계를 형성한 한학(漢學)으로 다져진 인물이라는 점에 있다. 말하자면 형은 봉건적 유교윤리에 깊이 젖은, 이인화의

13) 이외에도 ‘文化活動’, ‘實力養成’, ‘無產者’, ‘埋葬’, ‘大會’, ‘過渡期’ 등이 열거되고 있다.

14) 염상섭, 앞의 책, 61-62쪽.

표현을 빌자면 ‘보수적이고 전형적’ 조선적 세계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화 되어 가는 형의 모습에는 식민지와 제국간의 정치적 관계를 떠나 일본으로 상징되는 근대적 문물의 잠입 속에서 급격하게 몰락, 붕괴되어 가는 전통적 조선의 모습이 부조되고 있었다. 그 조선을 새롭게 채워오는 것이 바로 다른 아닌 이인화처럼, 1906년 발표된 보통학교령 아래, 혹은 1911년의 조선교육령 아래서 근대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학습으로 익힌 일본어를 통해 근대적 문물을 직접 흡수하면서, 전통적 조선과 자신간에 ‘通路가 全然히 杜絶’되었다고 느끼는 인물들이다. 「너희들은……」은 바로 이 인물들이 조선에 대거 출현해오는 그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전개된다. 그러므로 이들이 어떠한 의식의 정도를 지녔을까는 조선의 근대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Ⅲ. 타인의 삶을 향한 시선

1923년 발표된 김동인의 「마음이 열은者여」에서 신교육을 습득한 기혼자 ‘나’는 연애에 대한 동경 속에서 운 좋게 신여성 ‘Y’와의 교제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러브’라는 영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자신의 애정을 과장되게 표현해대던 ‘나’는 자신과 Y의 실제 애정관계를 설명하는 순간에서는 여타 애정 소설의 전개과정을 전범으로 사용한다. 복카치오의 소설을 인용하는가하면 有島武郎의 『어떤 여자』<sup>15)</sup>의 흐름을 좇아 자신의 감정을 진행시키고 ‘Y’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끊임없이 해조음을 듣는 『어떤 여자』의 여주인공과 연못의 거문고 소리를 듣는 「마음이 열은者여」의 여주인공간의 유사점처럼<sup>16)</sup>,

15) 김동인 「마음이 열은者여」에서는 ‘나’가 읽는 일본 소설이 단지 有島武郎의 작품이란 것만 명시할 뿐 작품명까지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의 언급을 통해 전개되는 줄거리를 살펴볼 때, 이 작품은 有島武郎의 대표 장편 『어떤 여자』(1919년 간행)임에 분명하다.

16) 여주인공이 자궁의 병을 앓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여주인공이 끊임없이 해조음(『어떤 여자』), 혹은 연못의 거문고 소리(「마음이 열은者여」) 등의 핵심적 요소의 동질성은 이들 작품간의 영향관계를 충분히 감지케 한다. 이상

쉽게 단언 내리기는 힘들나, 부정할 수도 없는 미묘한 영향관계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음이 열은者여」의 ‘나’에게서 나타나는 판단과 행위의 비자율성 문제가 염상섭의 「너희들은」의 덕순을 비롯해서 몇몇 등장인물들에게서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쉽게 간과하기 힘들다. 작품을 통해 볼 때 덕순은 여학교를 졸업, 아버지뻘 되는 재력이 응화와 결혼해 있는 인물이다. 덕순으로서는 초혼, 응화로서는 세 번째 결혼인 이들의 결합, 특히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에 전실 아들까지 둔 응화와 신여성 덕순 간의 다소 격에 맞지 않는 결합은 당대 여학생들이 처한 현실적 정황 및 신분적 한계를 벗어나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1886년 이화학당의 설립을 기점으로 첫 선을 보인 조선의 여학교는 을사보호조약 직후인 1906년부터 1910년에 걸쳐 급격히 증가된다.<sup>17)</sup> 그 결과 대략 191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1915년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여학생들이 사회로 배출되는데 나혜석 김원주 김명순 등이 바로 이 시기 여학교를 졸업했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들 초창기 여학생들은 신교육을 습득, 신여성의 상징적 존재로서, 당시 조선 사회의 주목을 한 몸에 받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외법(內外法)과 조혼의 풍습이 강력하게 남아 있던 전근대적 조선의 풍토 속에서 사회적 진출의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하게 된다<sup>18)</sup> 이 무리 속에 「너희들은 무엇을 어드느냐」의 덕순이 끼어 있다. 말하자면 덕순은 을사보호조약 후 여학교 설립의 붐 속에서 여학교에 진학하기는 했으나 자신이 습득한 신교육을 사회 진출의 기

---

의 내용에 대해서는 『惑る女』(有島武郎, 岩波文庫, 1998) 참조)

17) 사립학교가 대다수를 차지했던 이와 같은 여학교의 증가에는 여성 교육에 대한 대사회적 관심 대두 및 을사보호조약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존여비와 내외법의 유교적 전통이 아직 강력하게 남아있었던 보수적 조선의 분위기, 그리고 1910년 4월 7일 『皇城新聞』에 발표되었던 첩들의 여학교 설립 요구 등은 이 시기 여학생들의 신분적 기반을 감지케 해주기도 한다.

18) 의사 혹은 교원과 같은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여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이는 고등보통학교 출신의 첫 여사무원 모집이 1909년에 있었으며 이 다음의 여사무원 모집이 3년이나 지난 다음에 있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韓國女性史』 2, 梨花女子大學校韓國女性史編纂委員會, 梨大出版部, 1972, 72쪽 참조)

회로 연결시킬 수 없었던 바로 그 여학생들 중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과 관련된 이와 같은 에피소드를 고려할 때, 작품에서 발견되는 덕순의 선택, 예를 들자면 사고무친의 상황에서 남편과의 결별, 일본 유학, 후배 애인과의 추문으로 이어지는 행위의 전개는 무모하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는, 덕순의 일본 유학 결정에 대해 “일가친척도 업고 도라다볼 사람도 업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덤허노코 뛰어나오면 허영만 날 뿐”이라는 知人 ‘한규’의 걱정 반 조소 반 섞인 언급을 통해서도 충분히 감지된다.

이처럼, 남편과의 결별까지 의도한 덕순의 일본 유학이 아무런 준비, 목적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은 유학에 이르는 덕순의 의식에 대해 많은 점을 고려케 한다. 실제로 작품을 통해 볼 때, 덕순의 일본행은 학문적 목적이나, 준비가 없이 즉흥적으로 형성, 즉 유학에 대한 막연한 동경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 일본어 공부를 한답시고 후배 애인 ‘한규’를 불러들여 어줍잖은 연애 행각을 벌인다가, 조선의 ‘명수’에게 추파에 가까운 구애 편지를 보내는 것과 같은 일본에서의 덕순의 행각은 그녀 유학의 무목적성, 즉흥성에서 볼 때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덕순의 의식의 변모, 행위의 급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덕순이 자주 언급하는 일본의 ‘B女史事件’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B女史事件’이란 ‘白蓮女史’라는 필명으로 유명했던 歌人 伊藤燐子(당시 36세)가 남편인 큐슈의 탄광왕(炭鑛王) 伊藤伝右衛門에게 십년 결혼 생활을 마감하는 절연장을 쓰고는 1921년 10월, 동대(東大) 신인회(新人會) 회원이면서, 브나르도 운동에 관여하고 있던 연인 宮岐龍介(당시 27세)에게로 가버린 사건을 말한다.<sup>19)</sup> 개성 존중을 주창한 백화파(白樺派)의 성행 속에서 일본 사회의 찬탄과 비난을 함께 받았던 이 사건을 염상섭이 작품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白川豊 교수의 경우 여성의 독자의 판단과 자립 즉, 개성 존중에 대한 염상섭의 ‘共鳴’에서 기인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sup>20)</sup> 그러나 白蓮女史 ‘伊藤燐子’의 연애사건이 조선의 신여성 덕순의 입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고, 그녀 행동의

19)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는 『朝日新聞記事にみる〈戀愛と結婚〉』(朝日新聞社, 1997)과 白川豊의 「1920年代廉想涉小説と日本」(大村益夫外七名, 『朝鮮近代文學者と日本』, 平成11-平成13年度科學研究費基盤研究B(1)研究成果報告書, 2002. 2)을 참조했음.

20) 白川 豊, 「1920年代廉想涉小説と日本」, 앞의 책, 17쪽.

지표가 되고 있다는 점은 염상섭의 의도가 과연 그와 같은 ‘共鳴’에 있었던 것일까라는 의문을 지니게 한다.

실제로 덕순은, 남편과 결별, 목적 없는 일본 유학 감행과 같은 무모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그리고 일본 유학 생활에서 후배 애인 한규 또는 지인(知人) 명수와 기묘한 애정 행각을 벌이려 할 때에도, 어김없이 B여사의 연애사건을 언급, 자신의 행위를 B여사의 연애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 B여사의 연애사건에 대해 ‘용장’, ‘찬미’, ‘축복’이라는 용어로서 찬양하면서 무모한 일본 유학을 감행하는가하면, ‘노라의 리지적 개인주의 보다는 B여사의 연애생활이 가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후배 애인과 애정 행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타(自他)간의 경계 없이 B여사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에 전적으로 투영시켜버리는, 순진무구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덕순의 모습은 문화의 수용관계, 혹은 신여성의 허영이라는 종래의 지적을 넘어 당대 신청년들의 ‘내면’의 실재성 문제로 연결된다.

B여사를 삶의 전범(典範)으로 설정, 그 전범(典範)을 쫓아가는 덕순의 모습은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한규, 경애, 명수, 마리아 등 『너희들은……』의 다수의 신청년들에게서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을 탐독, 그 내용의 전개에 따라 경제력과 애정간의 관계를 해명해 가는 한규, 덕순의 행위를 『인형의 집』의 노라의 모습과 연결시키는 경애, 그리고 有島武郎의 소설을 전범(典範)으로 설정, 등장인물들의 행동에 자신의 행위를 일치시켜 가는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이들 신청년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수용해간다. 그러나, 宮岐龍介와의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 남편에게 절연장을 제출, 애인에게도 달려간 B여사, 즉 伊藤輝子和 남편과의 결별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후배의 애인과 갑자기 염문을 뿌려대는 덕순 간에는 어떻게 해서도 메워질 수 없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염상섭은 남편과의 결별을 준비하는 덕순과 그런 덕순을 바라보는 경애의 기묘한 시선을 통해 이를 짚어내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일본유학을 구실로 남편에게 체제비를 뜯어낸은 물론 자기의 옷가지까지 모두 들고 나오려는 덕순의 모습을 보며 절연장과 함께 끼고 있던 반지까지 남편에게 돌려보낸 伊藤輝子の 모습을 경애가 떠올릴 때 거기에는 일본과 조선간의 단순한 문화적 편차를

넘어, 이를 ‘내면’의 실재성 문제로 밀고 나가고자 한 염상섭의 태도가 깊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리브’를 신조어 ‘戀愛’로서 번역, 주체적으로 이를 수용했던 측과 번역어 ‘戀愛’를 ‘연애’로서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측간의 차이를 염상섭은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명수의 입을 통해 “소설의 인물을 모방”하는 행위를 “자기라는 것을 작난감으로 알고 인생이란 것을 유희로 아는 어릿광대의 심심푸리”로서 비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근거할 때 작품의 인물을 통해 드러나는 염상섭의 일본 편향적 태도, 예를 들자면 藝妓의 진정한 면모를 일본 기생에게서 찾는가하면, 진정한 연애란 일본 여성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등의 일본 편향적 태도 역시 정치적 문맥을 넘어 보다 신축성 있는 해석을 요구하게 된다. 말하자면 ‘연애’의 실현 여부에 대한 염상섭의 발언은 ‘내면’의 형성 문제, 그리고 확대하자면 조선적 근대의 실제 여부와 같은 본질적 문제들을 내재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丙谷行仁이 언급하듯 ‘내면’이란 “사물에 앞서 존재하는 <개념> 또는 형상적 언어가 무화”되는 순간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다면 ‘충’, ‘효’와 같은 유교 이데올로기의 자리를 ‘연애’로 대체, 절대규범에 자신을 의탁시켜버리는 덕순에게 적어도 ‘내면’이 성립될 여지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덕순 혹은 몇 명의 허영심 많은 신여성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작품에 등장하는 다수 신청년들에게 일반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사랑’을 체현해 가는 방법은 상당히 흥미롭다.

#### IV. ‘영혼의 사랑’과 실재하는 ‘사랑’간의 거리

1922년 발표된 나도향의 『환희』에서 여학생 혜숙은 동경 유학생 선용을 겨우 두 번 만나고는 연모의 감정을 고백하는가하면, 별다른 감정적 연계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경(東京)으로 연서(戀書)까지 보낸다. 이와 같은 혜숙의 행위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사자인 선용조차도 “그날 그 짧은 시간의 한 마디를 꾸미고 사라진 두 사람의 이야기가 과연 자기와 혜숙 사이를 굳고 굳게 사랑의 가닥으로 엮어놓았을는지 의문”을 느낀다고 할 정도인 것이다. 선용이 지

닌 이 의문은 신여성 나혜석이 조선에서의 ‘연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표했던 회의적 반응에서도 동일하게 감지된다. 나혜석은, 1923년 기생 강명화의 자살을 테마로 한 논설을 통해 조선에서의 ‘연애’는 기생사회에선 가능할 뿐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조선에서의 ‘연애’의 성립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sup>21)</sup> 특히 조선 여학생들의 이성교제에 대해, “不可思議의 本能性으로만 無意識하게 異性에 接”할 뿐이라는 나혜석의 지적은 당시 조선을 휩쓸던 ‘연애’의 실체에 대해 많은 의문을 지니게 한다. 『너희들은……』에서 신문기자 중환의 입을 빌어 염상섭이 설파하는 조선의 ‘연애’에 대한 정의는 이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요컨대 조선 사람이란 연애라는 행복을 타지 못하고 나온 인종일세. 근근두 정열두 업는 사람에게 연애가 잇슬 리가 있나! 그러면 연애를 찾지 안느나 하면 그러치두 안지! 그러나 니가 업서 씹지를 못하느니! 하기 때문에 마치 〈피애니스트〉의 손가락이 〈키〉 우로 날아단이듯이 입술에서 입술로 날아단이는 연애맛게는 업슬테지! 연애 업는 민족! 그거야말로 죄악들이 깔닌 길을 징 박은 신발로 밟는 것 가튼 것이 아냐가?……」<sup>22)</sup>

아울러 중환은 “연애를 할 만한 모든 조건과 조짐이 조선 사람에게 잇섯스면 조кет다”고 언급한 후 ‘연애’의 조건과 조짐에 대해 언급한다. 중환이 제시하는 ‘연애’의 조건과 조짐이란 ‘자기의 생활에 대한 깊은 자각과 날카로운 반성력’, 그리고 ‘순일한 감정’이다. ‘자각’과 ‘반성력’의 부재는 제쳐두고라도 ‘순일한 감정’이 조선에서의 ‘연애’에 결여되어 있다는 중환의 지적은 이 시기 조선의 청년들을 열광시켰던 ‘영원한 사랑’의 의식에 대해 많은 점을 고려케 한다. 뿐만 아니라 나도향의 『환희』, 『어머니』 혹은 이광수의 『再生』 등 ‘사랑’을 테마로 한 일련의 소설에서 발견되는, 목숨까지 희생하는 ‘순일한 사랑’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가 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1920년대 시와 소설, 그리고 논설을 통해 끊임없이 설파되고 있던 ‘사랑의 영원성’ 혹은 ‘불변하는 사랑’의 의식과, 사랑의 ‘순일한 감정’의 결여에 대한 염상섭의 지적, 이상충하는 상황을 이해함에 있어 『너희들은……』의 두 인물, 마리아와 명수의 사랑의 진행방식은 간과할 수 없다.

21) 羅惠錫, 『康明花의 自殺에 對하야』, 『東亞日報』, 1923. 8.

22) 염상섭,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 『廉想變全集』 1, 民音社, 1987, 271쪽.

작품을 통해 볼 때, 일본 유학 출신으로 룸펜 생활을 하고 있는 명수와, 여학교를 졸업한 후 모교의 교사로 있는 마리아 간에 애정이 형성될만한 결정적 계기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이들 각자의 복잡한 애정사(愛情史)는 이들 상호간에 발생하는 애정이 환영일지도 모른다는 느낌마저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자면, 마리아는 명동 어귀에서 구두점을 운영하는 멋쟁이 유부남 석태와 불륜의 애정관계에 빠져 있으며, 명수는 기생 도홍에게 골몰해 있다. 특히, 명수의 심적 흐름, 예전에 혼인 말이 있었던 신여성 희숙의 프로포즈를 받으면서 연인 관계도 아닌 덕순이나 마리아의 얼굴을 떠올리는 기묘한 심적 흐름은 조선 신청년들을 가리켜 “인간학을 연구하는 한 재료”라는 명수 자신의 조소 어린 언급이 의외로 그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마저 연출해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와 명수 이 두 사람이 어떤 경로를 거쳐 사랑의 감정을 형성케 되었는가에 대한 고찰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마리아가 불륜의 애정 관계에 있던 유부남 석태를 두고 애정의 방향을 갑작스레 명수로 바꾼 것에는 애정보다는 첫 연인으로부터 받은 편지의 한 구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구절이란 다름 아닌 “더럽히지 안은 명혼”의 고수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마리아의 불륜의 애정행각에 대한 조소 및 비난이 내포된 이 구절을 접한 후 마리아는 명수를 애정의 대상으로 조작해버리는 기묘한 심적 상태를 드러내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불륜의 애정에 대한 마리아 개인의 수치감이 한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요인만으로는 이 급격한 감정의 조작을 설명해내기는 힘들다. 특히 명수의 애정 상대인 도홍을 극렬하게 질투하는가하면, 명수에게 거침없는 연서(戀書)를 띄우는 등 열정적 연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심리적 흐름이 마리아에게서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마리아 자신조차도 이 감정의 조작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마리아에게서 발견되는 이 기묘한 심적 조작, 환각의 형성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하는 점은 조선적 연애, 혹은 ‘순일한 사랑’의 실체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너희들은……」 다음해인 1925년 발표된 이광수 『再生』의 신여성 순영의 모습은 주목할만하다.

『再生』의 히로인 순영은 여학생의 신분으로 부호 백윤희의 첩이 된 후 자살에 이르러는 인물이다. 이와 같은 순영의 비극적 삶에는 육체적 순결의 상실=영혼의 타락으로 결정짓던 ‘순결’ 혹은 ‘처녀성’에 대한 극단적 지향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의(自意)에 의해 부호 백윤희와 육체적 관계를 형성한 후 별반 관심도 지니지 않았던 지인(知人) 신봉구를 갑작스레 ‘영혼의 사랑’으로 설정, “더러운 육욕의 만족”과 “영혼의 사랑”에서 극렬한 갈등을 일으키던 순영의 모습은 이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점, 삼일운동의 동지에 불과했던 신봉구에 대해 순영이 지니는 급작스러운 애정은 「너희들은……」에서 명수에 대한 마리아의 애정의 형성과정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점에서 쉽게 간과하기 힘들다. 특히 삼일운동 참가, 투옥생활의 경험 등 이들 양자간의 이력의 동질성은, 이들이 겪는 사랑의 혼란을 작가의 개인적 성향을 넘어, 시대적 맥락 속으로 연결시켜 간다.

‘더럽히지 않은 령혼’이라는 구절을 접한 순간 명수를 애정의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마리아의 행위, 그리고 부호 백윤희와 동침 후 영혼의 타락에 절망, 갑작스레 동지에 불과했던 신봉구를 ‘영혼의 사랑’으로 위치시켜버리는 순영 이들의 모습에는 왠지 1920년대를 휩쓴 정신성, 영혼에 대한 과다한 집착, 예를 들자면 ‘처녀’에의 숭배 및 ‘정조’에의 강조로 표현되는 병적 금욕주의의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지고 있었던 것이다. 백윤희와의 첫 육체적 관계 후 『再生』의 순영에게서 나타나는 다음의 심적 변화는 이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순영은 더반항하려고도 안한다. 다만 기운도 다빠지고 정신도 다 빠진 사람과 같이 되어 백을 미워하고 원망할 경황도 없는 듯하다. 어찌하면 이렇게도 갑자기 세상이 암흑이 되어 버릴까. 마치 환하게 광명으로 찬 천당에서 영원한 지옥의 암흑 속에 떨어진 것 같다. 또 어찌하면 이렇게 갑자기 내 몸이 작아지고 더러워지고 천해진 것 같을까. 마치 백설 같은 흰 날개를 펴려거리며 한없이 넓은 허공을 자유로 날아다니던 천사의 몸으로서 갑자기 날개를 부러뜨리우고 구린내 나는 더러운 누더기에 감기어, 다니엘이 바벨론에게 잡혀 갇혀있던 토굴속의 이빨에 피묻는 사자들들과 같이 갇힌 듯하였다. 순영은 자기가 이 모양으로 갑자기 무서운 변화를 겪은 것을 놀라는 동시에 어저께까지의 자기가 몹시 그림고 부러웠다. 그러나, 어저께까지의 자기는 지금의 자기 얼굴에 침을 탁 뱉고 비웃는 눈으로 나를 힐끗힐끗 보면

서 높이높이 구름위로 올라가면서,  
 『마지막이야- 다시는 나를 못만나- 이 죄 많은 더러운 년아.』<sup>23)</sup>

백운회와 自意에 의해 첫 밤을 보낸 후, “추운 겨울 밤 학교 뒤 바위 밑 눈 위에 꿇어 엎드려서 울고 회개”하는 등 육체적 순결의 상실을 타락 혹은 죄로 곧장 연결시켜버리는 히스테리컬한 순영의 태도는 의식의 근거로서의 기독교의 영향력을 충분히 감지케 한다. 특히 “더러워진 영혼은 더욱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지글 지글 타고 있을 것”이라며 극도의 죄의식에 휩싸이는 가하면 선교사 P부인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순영의 모습은 1920년대를 휩싼 ‘처녀성’ 숭배의 태도가 어디서 근원한 것인지 짐작케 하기도 한다. 이는 최초의 여학교인 이화학당이 미션계였다는 점, 그리고 개화기 설립된 근대적 교육기관들 중 미션계통 교육기관이 차지한 적잖은 비율들로부터도 감지된다.

문제는 순영이 이처럼 기독교적 제의식에 근거 肉의 관계에 대한 멸시, 靈의 애정 관계에 대한 절대적 존중을 표하면서도 실제로는 남녀애정관계의 정신화 혹은 그녀가 그토록 갈망한 영적 애정이 무엇인가를 이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봉구에 대한 급격한 애정의 형성은 바로 이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말하자면 순영은 신지식을 습득한 미혼 남성과의, 육적 관계를 배제시킨 교제라는 외형적 틀의 구비만으로 영혼의 사랑이 달성된다고 판단, 이에 대한 동경 속에서 신봉구를 영혼의 애정으로 형성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은 애정관계의 본질적 요소인 사랑이 이 과정에서 전적으로 누락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순영의 연장선상에 『너희들은……』의 마리아가 위치해 있다.

실제로, ‘더럽히지 안은 령혼’이란 구절을 접한 후 히스테리컬해진 마리아가 머리에 떠올리는 것은 도홍을 끼고 앉은 명수의 모습인가하면 갑작스레 명수를 향해 가면서 명수의 가슴에 매달려 우는 ‘난데없는 공상’까지 한다. 명수와 아무런 감정적 연계가 없었음은 물론, 미국 유학의 협박을 해대며 석태에게 결혼을 재촉하고, 그와 입맞춤을 나누던 마리아의 심적 상태를 돌이켜 본다면 이

23) 李光洙, 『再生』, 『李光洙全集』, 三中堂, 1971, 60쪽.

의식의 혼란은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마리아가 곧장,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와 ‘구원’을 구할 상대로서 명수를 설정시켜 감은 그녀의 이 혼란, 히스테리컬함이 어디서 연유하고 있는가를 충분 짐작케 한다. 백윤희와의 정사 후 순영이 구했던 ‘고백’과 ‘용서’ ‘구원’의 기독교적 의식 및 그 속죄의 의미로서 ‘영혼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마리아에게서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대상이 많은 신청년들 중 왜 명수였는가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일본 유학 출신이며 미혼이라는 명수의 이력이 적어도 간음과 육체적 타락의 죄의식으로부터 마리아를 건져주기에 참으로 적합했다는 점 이외에는 달리 설명의 여지가 없다. 이는 환언하자면 그 사랑의 대상이란 반드시 명수가 아니어도, 동일한 이력을 지닌 인물이면 누구라도 무방함을 의미한다. 명수에게 보낸 연서(戀書) 속에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애원”한다거나, “온 몸동아리와 온 영혼을 점령하야” 자신을 ‘구원’해줄 새로운 힘으로서 명수를 상징시키는 등, ‘구원’에 집착하는 마리아의 모습은 바로 이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의 사랑, 영적 남녀관계에 대한 열렬한 동경, 그리고 그 개념의 관념적 수용 속에서 실제로서의 사랑이 소멸되고, 사랑의 환각이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을 둘러싼 이와 같은 환각 형성이 이광수의 『再生』, 염상섭의 『너희들은……』를 비롯, 신청년들의 애정관계를 테마로 한 이 시기 일련의 소설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은 이 시기를 휩싼 ‘영원한 사랑’ 혹은 ‘순일한 사랑’의 실재성을 충분 짐작케 해준다. 기독교를 통해 전파된 영혼, 정신성의 개념에 대한 관념적 이해, 기독교적 제 의식을 기저로 한 근대적 애정관계 ‘연애’에 대한 무자각적 도취. 이와 같은 조선적 상황 속에서, 이들 20년대 신청년들은 ‘영혼의 사랑’, 혹은 영원성의 의미로서의 영혼에 기반 한 ‘영원한 사랑’을 절대적 관념으로 변환,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육체의 유한성에 대비되는 영원성의 의미로서의 정신 및 영혼의 개념이라든가, 자기희생의 의식을 기저에 깔 기독교적 ‘사랑’의 제 의식. 이들에 대한 이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영혼의 사랑’이란 그 자체가 이미 허위이며 환영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 점을 이들 신청년들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조선의 근대가 지

닌 한 측면이기도 했다.

## V. 결론

염상섭의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가 지닌 이와 같은 측면들은 1926년 8월 발생한 김우진 윤심덕 간의 정사(情死)사건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윤심덕과 김우진의 정사사건에 직면, 잡지 『新民』의 특집 논의들이 표했던 부분, 이들 사랑의 실재성에 대한 회의를 결국은 신여성 윤심덕의 개인적 자질의 비판으로 연결시켜버리던 태도의 문제점을 「너희들은……」의 일련의 전개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사(情死)라는 극단화된 방법을 선택, 사랑의 절대성을 주창한 이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개인적 자질의 결여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는 또 다른 사회적 맥락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부분에서 언급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내면’의 실재성의 문제이다.

「너희들은……」의 신여성 덕순을 비롯, 다수의 신청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던 문제, 예를 들자면 전범으로서의 삶과 자신의 삶 간의 경계점을 상실해버리는 것과 같은 내면의 실재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의 반복적 표출은 적어도 이들이 주창하는 순일한 사랑의 실재성까지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기독교의 전파와 더불어 이입, 당대 사회를 열광시켰던 靈의 사랑 및 영원한 사랑의 개념이, 절대적 규범으로 변형, 조선에 정착되는 과정은 이에 대한 결정적 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 사랑이 누락되고, 환각으로서의 사랑이 생성되는 것과 같은 사랑의 진행을 둘러싼 「너희들은……」의 기묘한 상황이 김우진과 윤심덕의 情死사건으로 어렵지 않게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주제어 : 염상섭,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 사랑, 영적 사랑, 정사, 신청년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皇城新聞』, 『東亞日報』, 『新民』, 『開闢』, 『廉想涉全集』, 『李光洙全集』 등.

### 2. 국내 논저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咸宗圭, 『韓國教育課程變遷史研究』, 淑大出版部, 1976.

梨花女子大學校韓國女性史編纂委員會, 『韓國女性史』 2, 梨大出版部, 1972.

### 3. 국외 논저

大村益夫 外 七名, 『朝鮮近代文學者와 日本』, 平成11-平成13年度科學研究費基盤  
研究B(1)研究成果報告書, 2002. 2.

『朝日新聞記事にみる <戀愛と結婚>』, 朝日新聞社, 1997.

有島武郎, 『惑る女』, 岩波文庫, 1998.

〈Abstract〉

## Illusion of Life and Illusion of Love

Jung, Hae-Young

In *What did you obtain?* which was published in the middle of the 1920, SangSeup Yeum described the custom of early modern Chosun by the love relations among modern young people. The situation of Chosun in the historical upheaval such as changing into modern society and the failure of Samil Independence Movement was adopted as the main theme of *What did you obtain?*. So most characters in *What did you obtain?* received or were receiving modern education and also tried to accustom themselves to modern social consciousness and custom. However, all the modern civilization which was mentioned in *What did you obtain?* such as piano, concerts, love affair which girls and church service was used just as a code for providing characters' modernity without being connected to their modern social consciousness. Here we see a strang reversion. It is not that modern social consciousness has created modern style naturally but that acquirement of modern civilization has represented modern social consciousness.

The ironical situation of modern Chosun got to be closed up by SangSeup Yeum in *What did you obtain?* through showing us those characters' lives filled with illusion. In case of the characters in *What did you obtain?* even though they could feel they loved each other, they failed to express their love to each other. And they tried to accept 'love' just as the symbol of modernism without understanding the concepts of 'love' emphasizing spiritualization and mentalization, that is, without understanding of equality of man and woman based on modern social consciousness fully. Every character in *What did you obtain?* has something in common by pursuing

illusion and falsehood. With that an era and a world of Chosun in its dawn of modernity could be established in *What did you obtain?*.

Key Words : *What did you obtain?*, Yeum, Sang-Seup, modern young people, love, love emphasizing spiritualization and mentalization, modern young people, love affair